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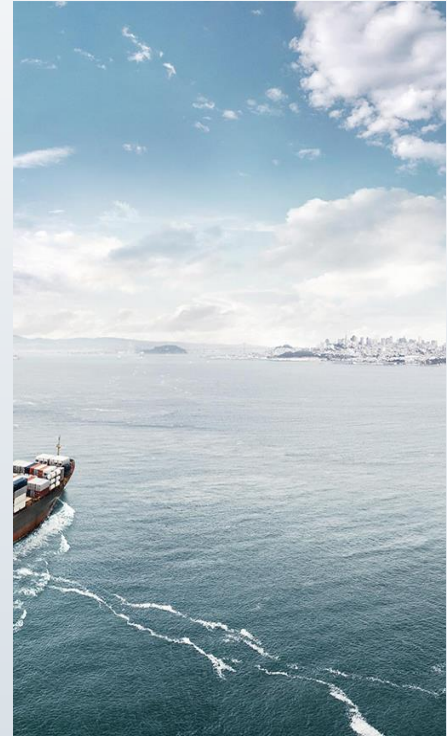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137

Updated February 14, 2017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3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Useful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MARKET OVERVIEW

### 1. 신조선 시장동향

부유식 가스 저장·재기화 설비(FSRU)의 신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유럽 선사에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최대 2 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터키 건설사 콜린 등으로 구성된 국영벤처로부터 FSRU 1 척을 수주하고 추가로 1 척을 수주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는 FSRU 1 척당 약 2억 3,000만 달러 정도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올해 첫 선박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미국 LNG 회사와 173,400 m<sup>3</sup>급 FSRU 7 척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7 척을 모두 계약하면 16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게 된다.

### 2. 벌크선 시장동향

BDI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춘절 연휴로 인한 운임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해운시황에 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벌크선 전 선형에서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적극적으로 선박 검선에 나서고 있고, 이는 곧 성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프벌크선 TEH MAY (175,058 DWT, BLT 2004 SHANGHAI WAIGAOQIAO)가 1,04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SONGA BULK가 "FLAMA" (80,448 DWT BLT 2011 STX)를 약 1,450만 달러로 매입하였다. 지난 달 1,310만 달러로 SONGA BULK가 매입한 "MAVERICK GENESIS" (80,705 DWT, BLT 2010, STX SB)를 비교해 본다면, 캄사르막스 부문의 선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캄사르막스의 수요가 높는데 반해 한국/일본 건조 캄사르막스의 공급이 낮아 선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벌크선 8척과 컨테이너선 2척을 매매 대상선으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한진 선대 매각을 시작하였다. 보통 일본선주들이 선령 8-10년사이의 선박을 매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선령 3-7년의 모던선박이 시장에 한번에 오픈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1일까지 바이어 등록을 받고, 2월 28일까지 OFFER 제출 기한이다.

## I . MARKET OVERVIEW

---

### 3. 탱커선 시장동향

지난주 브렌트유 지수는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전주대비 0.24 달러 하락한 배럴당 56.74 달러로 한주를 마감하였다. 중고선 시장에서는 지난 몇 주간 상당수의 MR 탱커선이 매각되었으나 제품운반선부문 용선료 약세가 지속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도상선이 모던 MR 탱커선 4 척 매각을 진행하면서 활발한 매각활동을 하고 있어 조만간 성약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대상선은 다음과 같다.

-M/T "BATISSA" (51,500 DWT/BLT 2008 STX KOREA)

-M/T "ATLANTIC HOPE" (47,128 DWT/BLT 2008 HYUNDAI MIPO)

-M/T "ATLANTIC DIANA" / "ATLANTIC BLUE" (47,128 DWT/BLT 2007-2007 HYUNDAI MIPO).

### 4. 해체선 시장동향

해체 대상선 부족으로 성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컨테이너선을 주축으로 여러척의 선박이 해체 매각되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해체 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형벌크선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면서 선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인도 해체선 시장선가는 약세에 있다.

중국 바이어들이 춘절 연휴 이후로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도 아대륙에 위치한 해체 대상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오퍼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선주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 많은 해외 선박이 향후 몇 주 동안 중국 해체 야드로 이동 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모아졌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STAR ELEONORA"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많은 대형/노후선 선주들이 선박 정기 검사를 받기보다 해체선 매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 II . ISSUE & TREND

### 1. 쏟아지는 컨선...글로벌 선사 올해만 173 만 TEU 신규 투입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가까이 보서는 한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선박은 세계 9위의 대만 선사인 OOCL 이 발주한 21,100TEU 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다. OOCL 은 지난 2015 년 삼성중공업에 2 만 1,100TEU 급 컨테이너선 6 척 건조를 맡겼고, 올해부터 차례대로 인도해갈 예정이다.

인근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도 세계 1 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발주한 19,000TEU 짜리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다. 총 11 척을 발주한 머스크는 오는 4 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박을 인도하게 된다.

지난해 글로벌 해운업계를 적자의 늪에 허덕이게 했던 저(低)운임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 년께 글로벌 선사들이 앞다퉈 발주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올해 속속 인도돼 운항에 투입된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수요(물동량)와 공급(선복량)을 놓고 봤을 때 공급 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12 일 영국 해운 컨설팅업체인 드류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되는 선복 규모(발주 잔량)는 173 만 5,000TEU(249 척)다. 이는 지난해에 인도됐던 87 만 3,000TEU 보다 2 배 가량 많을 뿐 더러 세계 4 위 선사인 중국 COSCO 선복 규모(165 만 TEU)와 맞먹는다. 현대상선의 선복 규모가 46 만 TEU 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상선 4 배 규모의 선사가 시장에 새로 등장하는 꼴이다.

김현수 해운거래정보센터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해상운송시장에 나타났던 선복 과잉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선복이 풀리면서 공급 과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장에 풀리면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해상 운임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선사들이 이러한 업황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한 선사들은 그만큼 운임 단가를 낮춰 수익성을 보전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배를 한 번 띄워 100 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 1,000 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게 선사 입장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 II . ISSUE & TREND

반면 현대상선과 같은 국내 선사는 수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저가 운임을 속수무책으로 떠안아야 할 처지다. 실제로 전 세계 선사들이 보유한 발주 잔량은 274 만 2,735TEU 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3 만 TEU 가 빅 5 선사에 몰려 있다. 현대상선의 발주 잔량은 '제로'다. 현재 기준으로 인도할 선박이 아예 없다는 의미다. 1 만 5,000TEU 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를 통해 저운임에 대응하는 선사들의 전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부진한 업황을 헤쳐나갈 기회를 잃었다"면서 "현대상선이 지금이라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2. 조선소 1 월 선박 수주, 중국·일본 제치고 '깜짝 1 위'

수주 가뭄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소가 새해 첫 달 수주실적에서 중국과 일본에 앞서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7 일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 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60 만 CGT(표준화물 환산톤수, 31 척)를 기록했다. 지난해 1 월 발주량(56 만 CGT)와 비슷한 규모다. 이 가운데 한국 조선소는 총 7 척, 약 33 만 CGT 를 수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 만 CGT·1 척)이나 전월(13 만 CGT·3 척)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술력을 요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FSRU) 등의 선박을 수주한 것이 눈에 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FSRU 를 1 척씩 수주했고, 현대중공업은 탱커선사 DHT 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 척 계약을 맺었다. 대한조선과 현대미포조선은 석유제품운반선을 각각 2 척과 1 척 수주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지난달 수주실적은 각각 11 만 CGT(8 척)과 2 만 CGT(1 척)에 그쳤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1 월에는 각각 30 만 CGT(25 척), 9 만 CGT(7 척)을 수주했는데 올해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한국 조선소의 수주점유율은 55.5%로 중국(18.3%)과 일본(4.1%)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발주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한 달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새해를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II . ISSUE & TREND

대형 조선소의 수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조선기자재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발주량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병국 전무는 "조선소 수주가 조선기자재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10개월가량 걸려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3. 선박해양, 현대상선 매입선박 10 척 선정..지원 본격 착수

국내 해운사 지원을 위해 KDB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로 지난달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이하 선박해양)가 현대상선으로부터 매입할 선박 10 척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 올해 중 현대상선 선박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에 약 8000~9000 억 원이 쓰일 전망이다.

7 일 금융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선박해양과 현대상선은 현대상선이 보유한 24 척의 컨테이너선 중 선박해양이 인수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할 대형급 4 척과 중형급 6 척 등 총 10 척의 컨테이너선을 잠정 합의했다.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 중 선박투자를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인 곳 위주로 매입 대상 선박이 정해졌다.

선박해양이 살 10 척의 선박 시가는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원화 환산 시 총 약 1300 억~1500 억원 수준이다. 선박해양은 현대상선 측과의 세부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선박투자회사를 만드는 등의 절차를 조만간 밟을 예정이다. 선박해양은 시가에 준하게 현대상선의 선박을 매입할 예정이라, 매입이 완료되면 당장 약 1300 억~1500 억원 수준의 유동성이 현대상선에 공급된다. 선박해양은 이 선박을 산 뒤 현대상선에서 용선료를 받고 다시 임대한다.

선박해양이 매입할 선박의 시가는 장부가보다 약 7500 억원 더 적다. 선박해양에선 올해 중 현대상선에 이 차액만큼의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본확충 방식은 유상증자와 영구채 매입이 병행된다. 구체적인 자본확충은 우선 세일앤리스백 절차가 완료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선박해양이 설립된 주목적이 국내 원양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재임대 해주고 매입한 선박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자본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만큼, 세일앤리스백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자본확충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영업손실이 지속 돼 재무구조를 안심할 수 없는 현대상선으로선 1500 억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과 약 7500 억원대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 II . ISSUE & TREND

지난해 3 분기 말 기준 186%으로 2015 년 말 2007%에 비해선 급락했으나, 여전히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재무구조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 물동량 정체가 길어지고 공급 과잉으로 운임회복도 늦춰지면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3 분기까지 6473 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 4. 해운업계 불황 늪... 세계 1 위 머스크도 적자로 돌아서

국내 1 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실질적으로 파산한 상황에서,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도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1 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 역시 2 차 세계대전 이후 둘째로 나쁜 실적을 보였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매출 4 조 5,800 억원, 영업적자 8334 억원을 기록했다고 9 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9%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2 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상선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치킨게임(죽기살기식 경쟁)'으로 인한 해운 운임 급락이다. 여기서 현대상선은 구조 조정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영업 활동도 하지 못했다.

머스크도 지난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은 355 억달러(약 41 조원), 당기순손실은 19 억달러(약 2 조 2,000 억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5 년 400 억달러(약 46 조원)와 비교해 11% 감소했고, 당기순익도 2015 년 9 억달러 흑자에서 작년엔 적자로 돌아섰다. 애초 시장에선 머스크가 3 억 2,000 만달러(약 4,000 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운과 원유 시추 등 부문에서 예상외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낮은 해운 운임으로 매출액이 줄고, 저유가로 시추 부문도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해운업은 최악 상황에선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는 최근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이 2~4% 성장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해운 운임 대표 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작년 8 월 596 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직후인 작년 9 월 708 로 오른 후, 작년 연말엔 952 까지 상승했다. 현대상선도 지난해 4 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늘고 영업손실은 줄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연료 효율이 높은 신규 선박을 확보하고 미주 노선 등의 영업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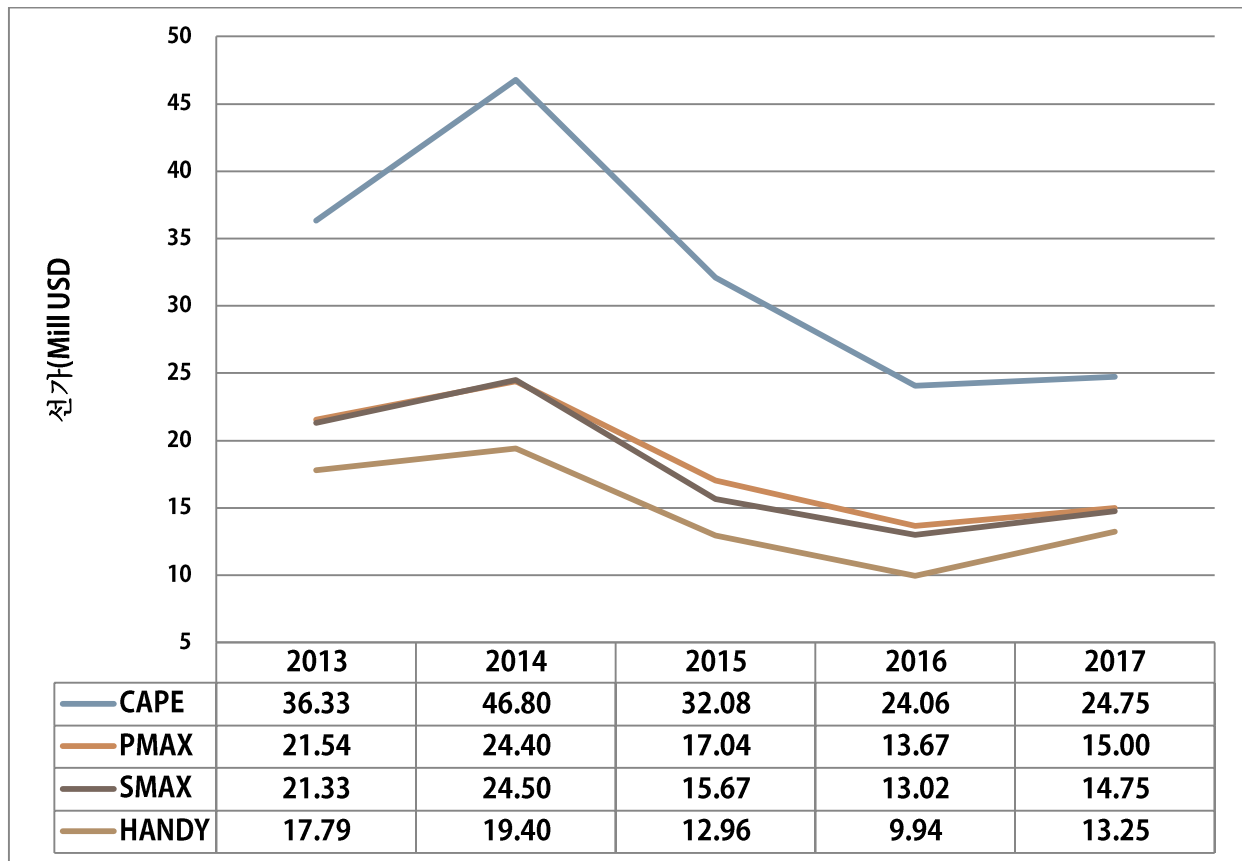
###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pesize 180K	36.33	46.80	32.08	24.06	24.75
	6%	29%	-31%	-25%	3%
Panamax 76K	21.54	24.40	17.04	13.67	15.00
	-2%	13%	-30%	-20%	10%
Supramax 56K	21.33	24.50	15.67	13.02	14.75
	-4%	15%	-36%	-17%	13%
Handysize 32K	17.79	19.40	12.96	9.94	13.25
	2%	9%	-33%	-23%	33%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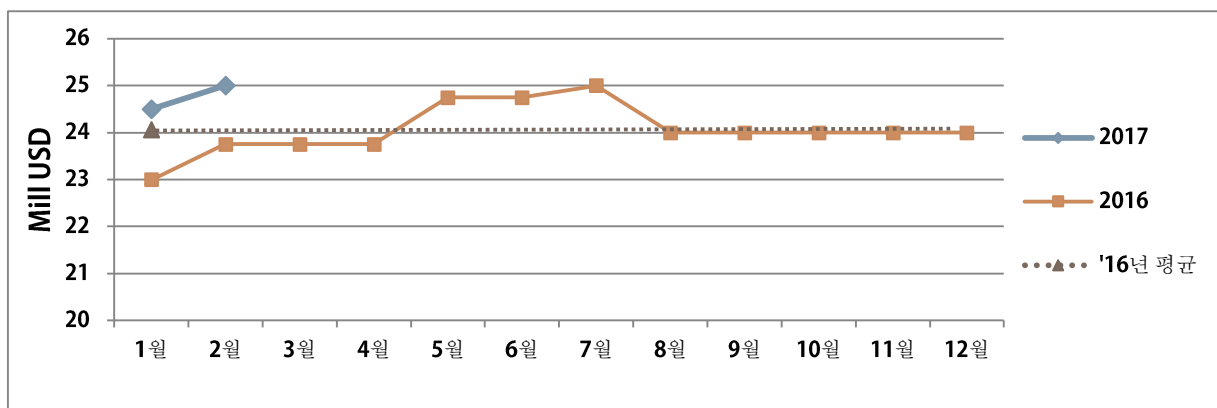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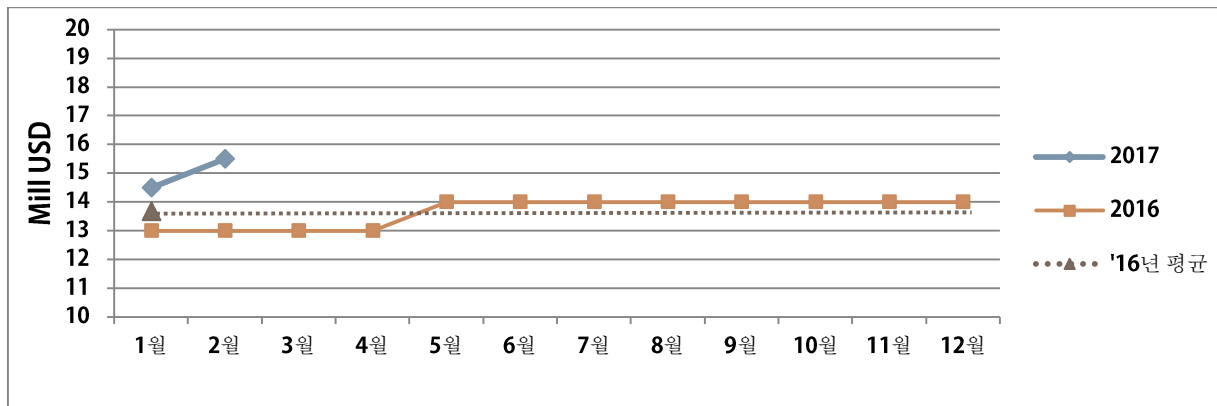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7	CAPE 180k	선가	24.50	25.00				24.8
		전월대비	2.1%	2.0%				-
		전년대비	6.5%	5.3%				2.9%
	PMAK 76k	선가	14.50	15.50				15.0
		전월대비	3.6%	6.9%				-
		전년대비	11.5%	19.2%				9.8%
	SMAK 56k	선가	14.50	15.00				14.8
		전월대비	3.6%	3.4%				-
		전년대비	11.5%	25.0%				13.3%
HANDY 32k	선가	13.00	13.50				13.3	
	전월대비	8.3%	3.8%				-	
	전년대비	36.8%	42.1%				33.3%	
2016	CAPE	23.00	23.75	23.75	23.75	24.75	24.75	24.1
	PMAK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3.7
	SMAK	13.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
	HANDY	9.50	9.50	9.50	9.50	9.00	9.00	9.9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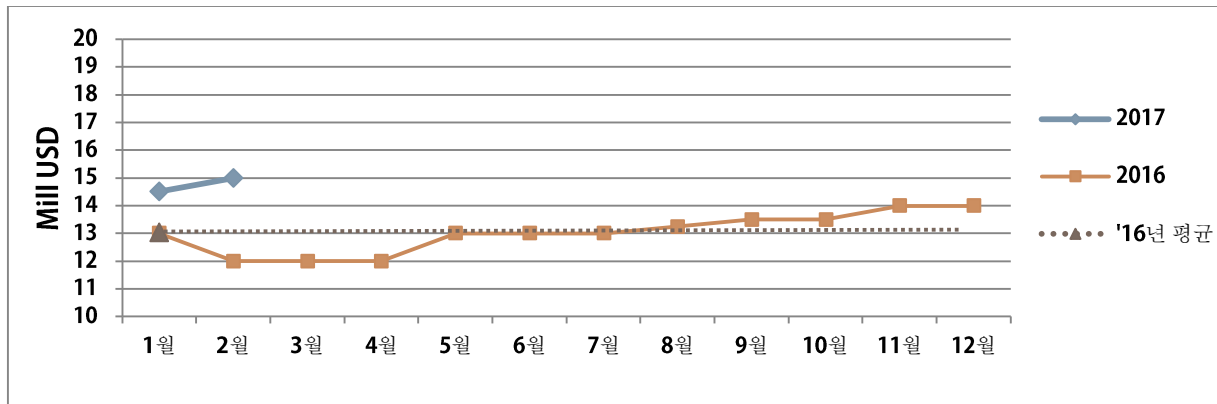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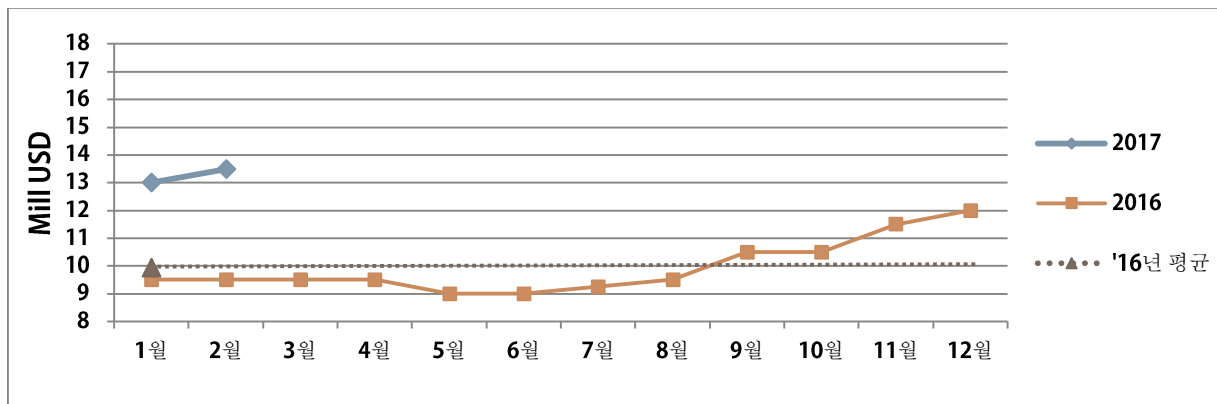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TEH MAY	175,085	2004	CHINA	B&W		10.8	European buyer
BC	FLAMA	80,448	2011	KOREA	B&W		14.5	Norway buyer (Songa Bulk)
BC	CONTI SPINELL	75,200	2011	CHINA	B&W		10.4	Undisclosed buyer
BC	YANGZHOU DAYANG DY161	63,500	2017	CHINA	B&W	C 4x35t	18.5	Undisclose buyer
BC	BRILLIANT PHOENIX	61,242	2016	JAPAN	B&W	C 4x30.7t	22.6	GreeK buyer
BC	ZORINA	56,757	2011	CHINA	MAN	C 4x36t	7.35	Panamanian buyer (Universal Ship Investment Corp)
BC	DARYA BHAKTI	56,060	2005	JAPAN	B&W	C 4x30.5t	8.6	Bangladeshi buyer
BC	GENCO CARRIER	47,180	1998	JAPAN	B&W	C 4x30t	3.45	Undisclosed Buyer
BC	CWB MARQUIS	37,400	2014	CHINA	WART		14	Undisclosed buyer, Auction sale
BC	INDIGO FELICITY	28,375	2010	JAPAN	B&W	C 4x30t	7.5	Greek buyer (Giavridis)
BC	NANA LEEN	28,375	1995	JAPAN	MITSU	C 4x30t	2.7	Undisclosed buyer
BC	XIA ZHI YUAN 7	27,000	2010	CHINA	B&W	C 3x30t	6.6	Chinese buyer
MPP	FLINTERSTREAM	8,850	2009	VIETN	MAK	C 2x80t	--	Germ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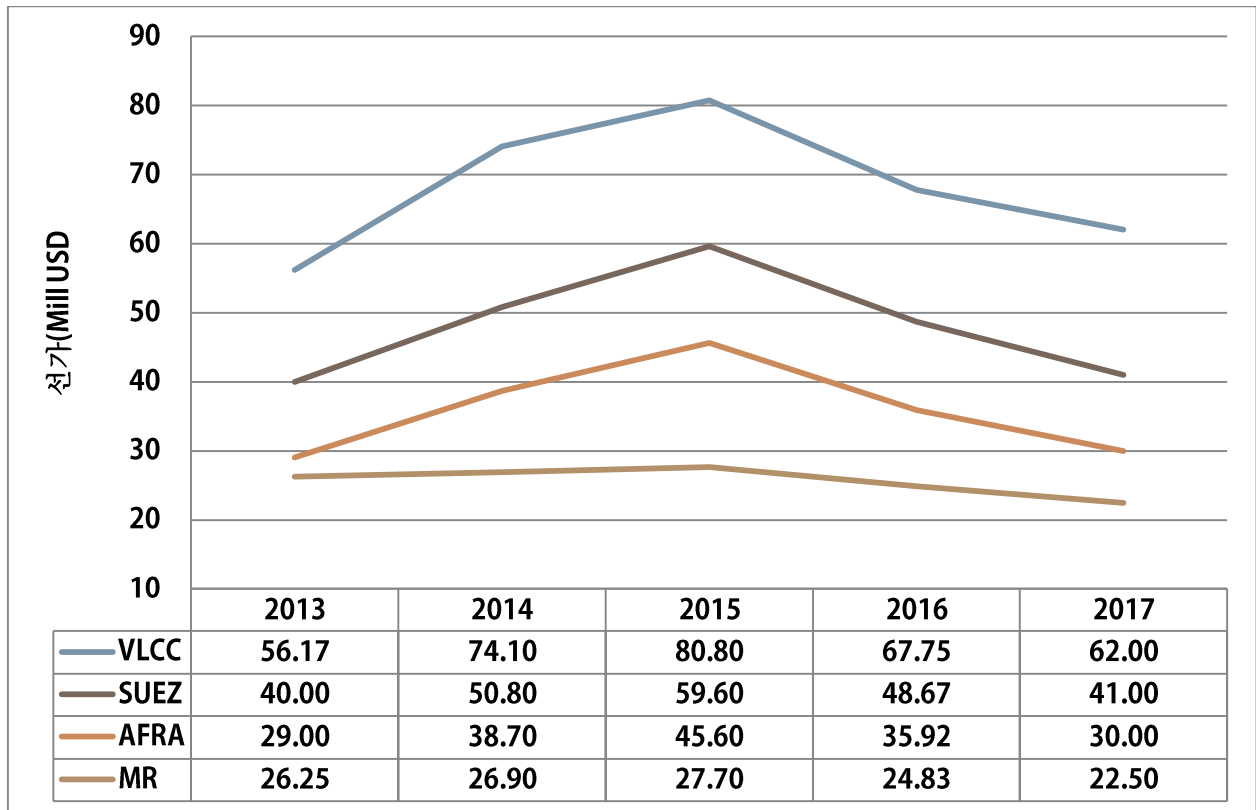
##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VLCC 310K	56.17	74.10	80.80	67.75	62.00
	-10%	32%	9%	-16%	-8.5%
Suezmax 160K	40.00	50.80	59.60	48.67	41.00
	-10%	27%	17%	-18%	-15.8%
Aframax 105K	29.00	38.70	45.60	35.92	30.00
	-5%	33%	18%	-21%	-16.5%
MR 47K	26.25	26.90	27.70	24.83	22.50
	5%	2%	3%	-10.3%	-9.4%
Chemical Tanker IMO II 13K	11.94	13.00	12.60	13.92	12.13
	13%	9%	-3%	10.4%	-12.9%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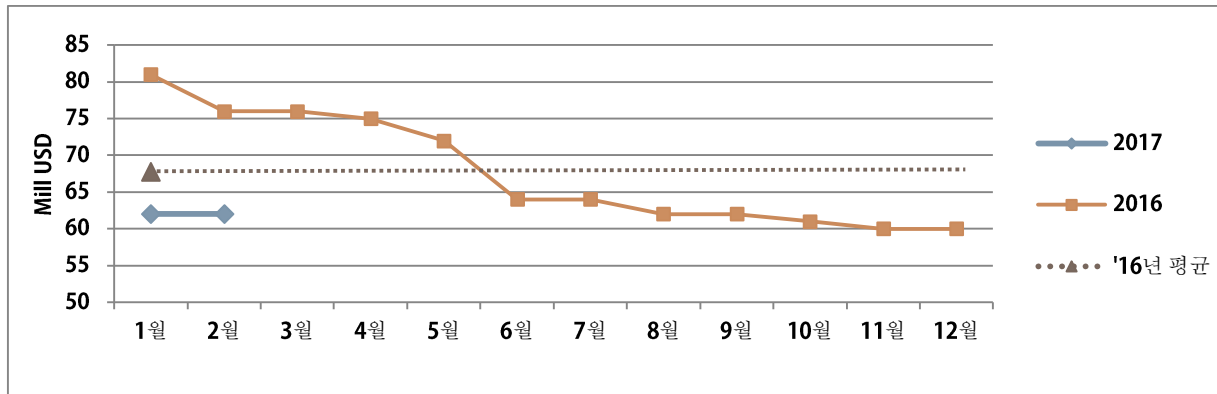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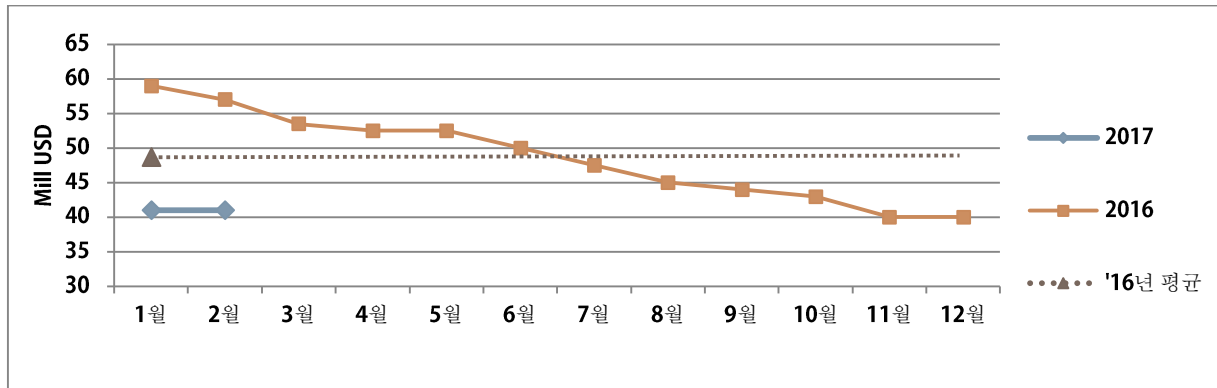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7	VLCC 310K	선가	62.00	62.00				62.0
		전월대비	3.3%	0.0%				-
		전년대비	-23.5%	-18.4%				-8.5%
	SUEZ 160K	선가	41.00	41.00				41.0
		전월대비	2.5%	0.0%				-
		전년대비	-30.5%	-28.1%				-15.8%
	AFRA 105K	선가	30.00	30.00				30.0
		전월대비	3.4%	0.0%				-
		전년대비	-33.3%	-25.0%				-16.5%
	MR 47K	선가	22.50	22.50				22.5
		전월대비	2.3%	0.0%				-
		전년대비	-25.0%	-18.2%				-9.4%
CHEM IMO2 13K	선가	12.25	12.00				12.1	
	전월대비	-5.8%	-2.0%				-	
	전년대비	-12.5%	-15.8%				-12.9%	
2016	VLCC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SUEZ	59.00	57.00	53.50	52.50	52.50	50.00	48.7
	AFRA	45.00	40.00	40.00	40.00	39.00	37.00	35.9
	MR	30.00	27.50	27.50	27.50	26.50	24.00	24.8
	CHEM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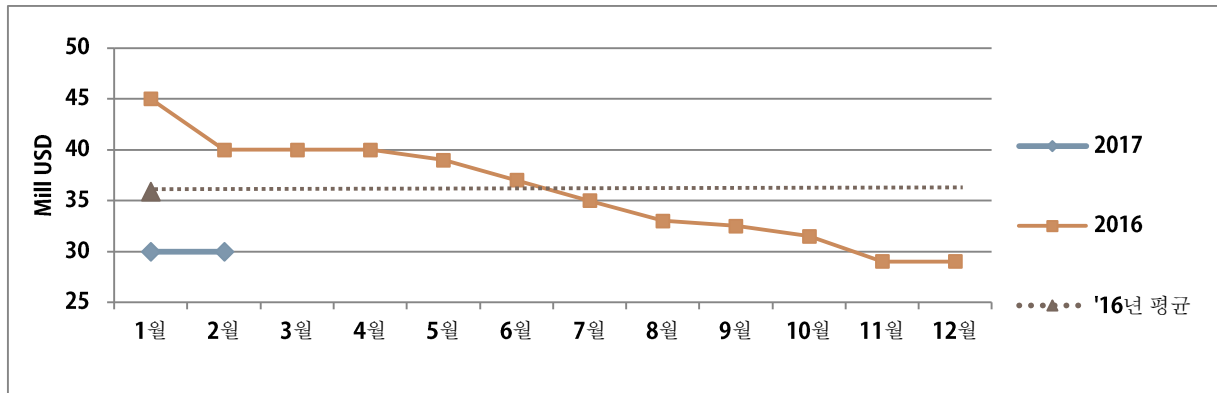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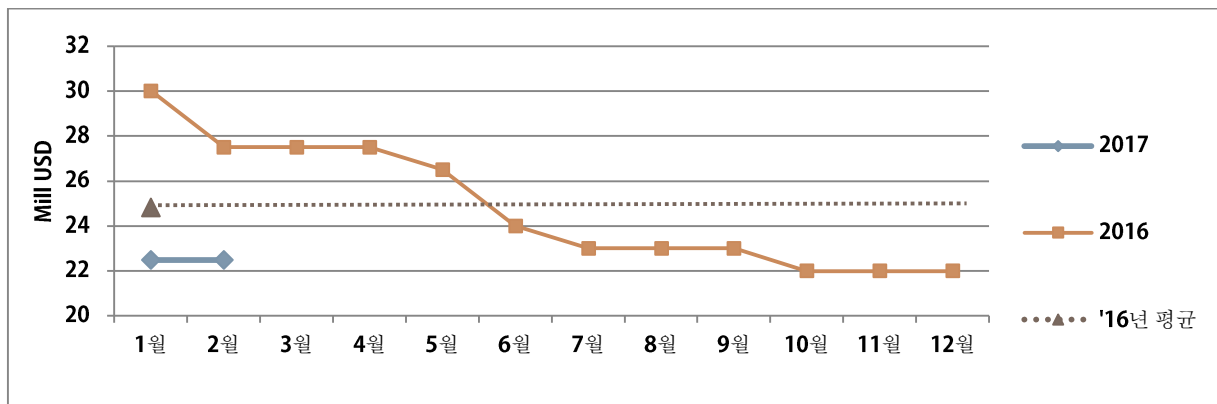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 IV.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CHEM	BRO COMBO	16,596	2003	JAPAN	B&W	2&3	10.5	Far East buyer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 V .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5 평균		2016 평균		2017 평균		2016 년 2 월	2017 년 2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41.04	-28.2%	265.63	-22.1%	315.00	18.6%	237.50	307.50	-4.7%	29.5%
BC	336.54	-28.2%	267.71	-20.5%	317.50	18.6%	232.50	315.00	-1.6%	35.5%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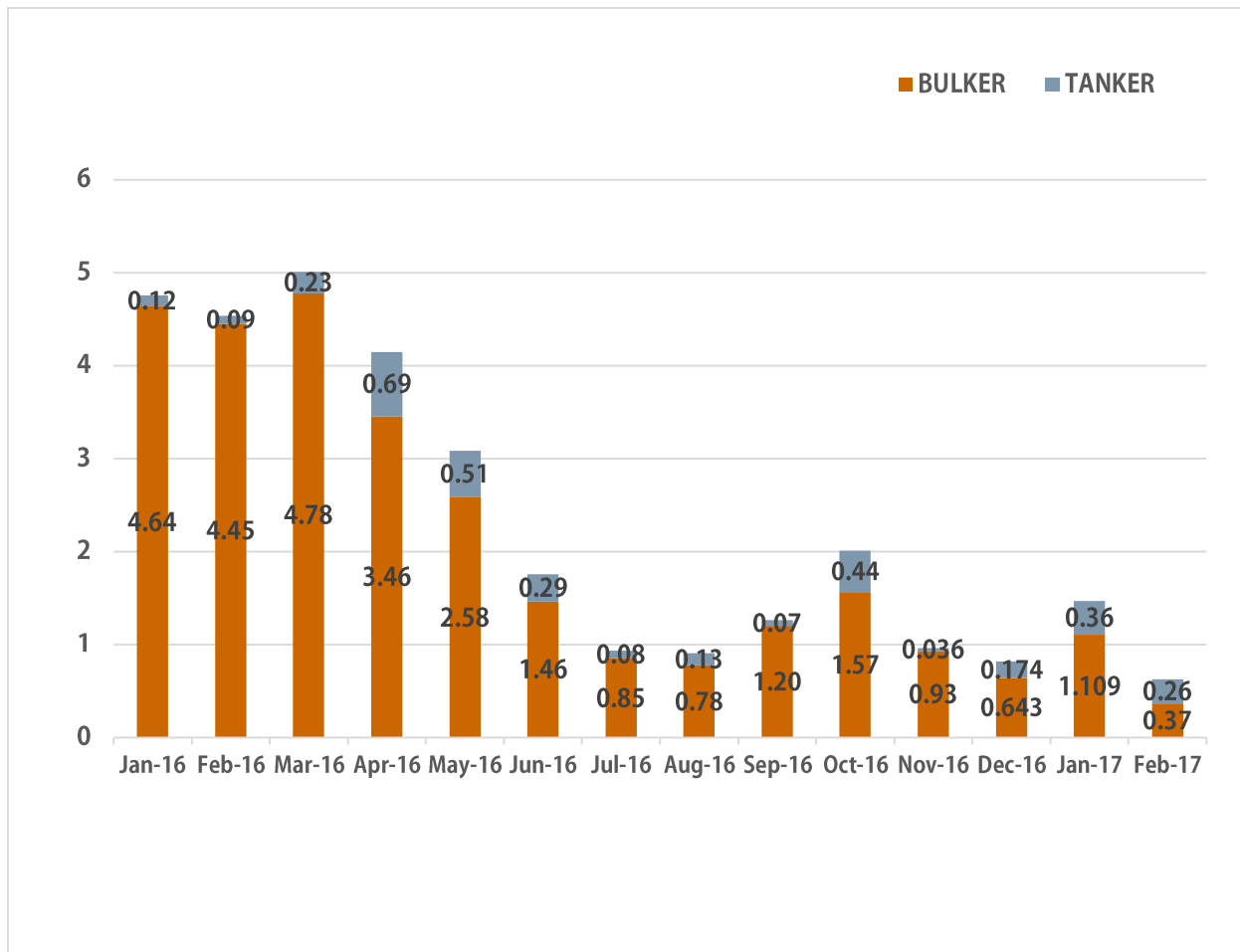


## 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6 년		2017 년 누적				2016 년 2 월		2017 년 2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86	46	0.62	21.6%	6	13.0%	0.09	2	0.26	184.4%	3	50.0%
BC	27.34	428	1.48	5.4%	31	7.2%	4.45	51	0.37	-91.7%	10	-80.4%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V . DEMOLITION

###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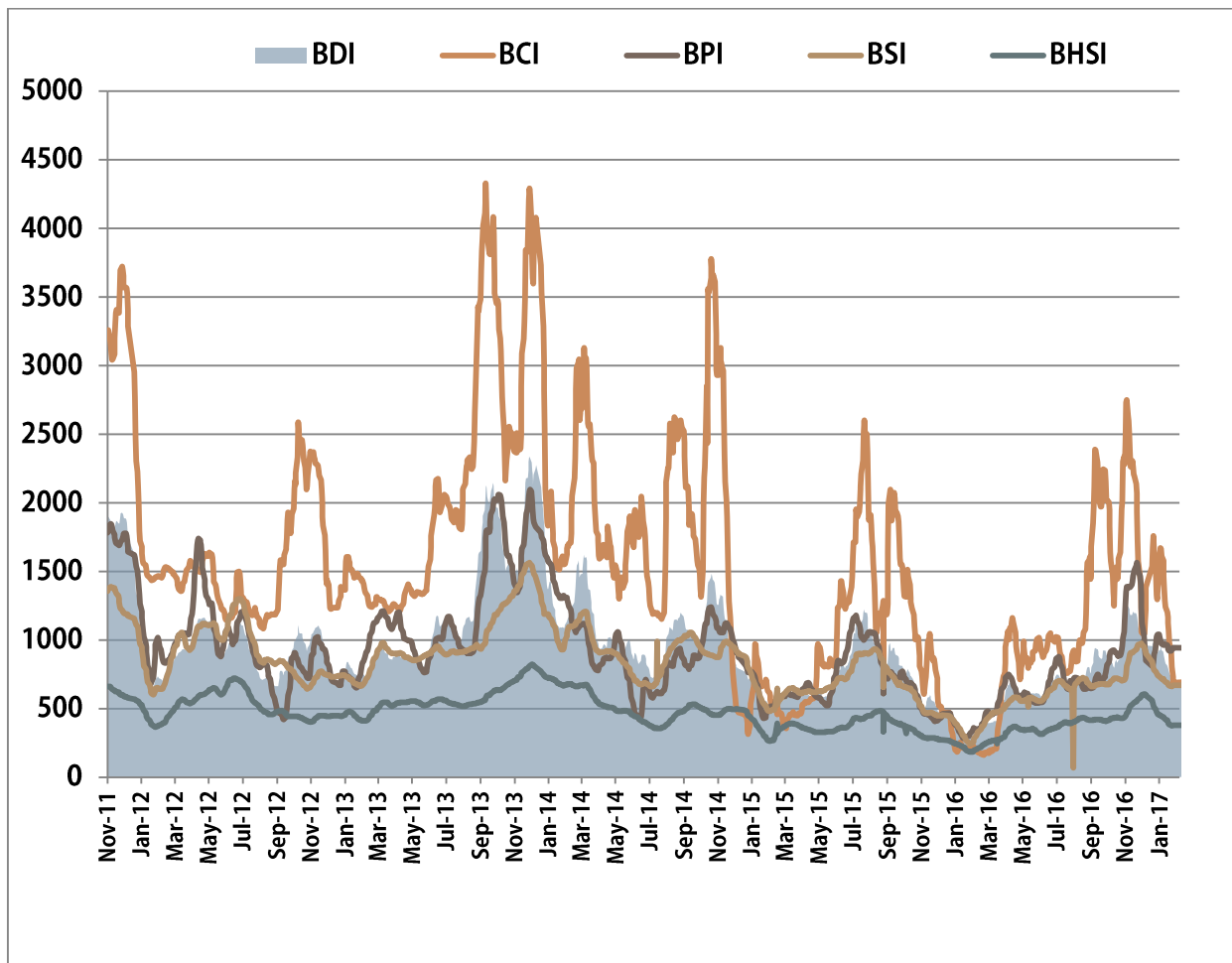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REMARKS
BC	STAR ELEONORA	164,218	23960	2001	CHINA	B&W	345	Full Subcont option
BC	ORANG	22,950	8000	1997	CHINA	SULZ	--	AS IS Bandar Abbas
CONT	HANJIN VIENNA	68,264	23672	2000	KOREA	SULZ	285	Auction Vancouver, extra payment for 2,100 tons ifo/530 t mdo
CONT	ANNA SCHEPERS	33,545	10636	1997	KOREA	SULZ	--	AS IS Jebel AI
CONT	RUNNER	9,200	4647	1995	POLAND	MAN	305	AS IS Delivery Singapore



## VI.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7-02-10	2017-02-03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702	752	-50	2337	290
BCI	687	981	-294	4329	161
BPI	943	922	21	2096	282
BSI	672	667	5	1612	66
BHSI	377	382	-5	827	183





## VI.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25.50	-2.00	303.50	5.00	302.00	3.50
IFO180	344.00	-3.00	336.50	-2.50	399.00	4.00
MGO	504.00	1.50	480.00	-2.00	509.50	-4.00

❖ 기준일 : 2 월 10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7-02-10	2017-02-03	CHANGE
미국달러	1145.70	1149.20	-3.50
일본엔(100)	1010.81	1018.48	-7.67
유로	1220.80	1236.71	-15.91
중국위안	167.29	168.54	-1.25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정기 총회	한국해운물류학회 정기총회	2. 24 (금)	프레지던트호텔 31 층 슈벨트홀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해사문화상, 해운물류경영대상 시상식
정기 총회	해운중개업협회 정기총회	2.27 (월)	프레지던트호텔 19 층 아이비홀	주요안건 1) 2016 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안 2) 2017 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 3) 기타 협회 발전 방안 등
포럼	SHIP RECYCLING FORUM 2017	2. 27 (월) ~ 2. 28 (화)	PARKROYAL on Pickering, Singapore (TradeWinds)	◦ "Make a clean break".



## VII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Danny Park (박준섭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 010-5299-1126

snp@stlkorea.com

danny@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Patima J.H. Lee (이지혜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 010-6455-1646

snp@stlkorea.com

patima@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